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본 <덴동어미화전가>

— 치유의 과정에 주목하여 —*

김은 희**

차 례

1. 머리말
2. 치유의 메커니즘
3. 치유의 과정
 - 3.1. 덴동어미
 - 3.2. 청춘과부
 - 3.3. 화자 및 화전놀이 참여 여성 그리고 독자
4. 맺음말

| 국문초록 |

이 글은 <덴동어미화전가>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 카타르시스, 통찰의 세 요소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경험하고 관찰해 보았다. <덴동어미화전가>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 놀이의 과정과 향유 및 소통의 양상을 정리·제시해 보았으며, 화자 및 주요 인물 그리고 참여여성들과 독자를 중심으로 그 치료과정 및 양상을 실증적으로 조목조목 짚어보았다. 즉 참여자들의 치유과정을 자기서사 서술에 초점을 맞추어, (1) 덴동어미, (2) 청춘과부, (3) 화자 및 화전놀이 참여여성 그리고 독자의 세 층위로 살펴 보았다. 조선후기 여성들이 화전가 창작과 향유, 전승을 통해 받았을 위로와 격려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봄으로써 그 현재성을 확인해 본 것이다.

덴동어미가 과거를 불러와 화전놀이 참여여성들 앞에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운명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청춘과부 또한 화전놀이 과정에서 덴동어미의 삶을 경험·이해하고, 고독과 슬픔에서 벗어나며, 덴동어미의 일생담, 즉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통합을 통해 치유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덴동어미의 일생담

* 이 논문은 2015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덕성여자대학교

은 청춘과부 외에도 화자 및 화전놀이 참여여성들, 독자들 모두에게 치유의 기회를 중재한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과거에 직면하고 결핍을 이야기함으로써 확장된 공감과 카타르시스, 깊어진 통찰에 의해 참여자 모두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서러움의 토로와 놀이는 덴동어미와 청춘과부에게 정직함의 훈련이었으며 자기 암시였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확장시켜 치유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자발성과 창의성이 나를 치유하게 하고 나아가 남을 치유하는 힘이 있음도 확인된다. 삶의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화전놀이 참여여성들과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준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가해한 운명의 고통, 보편적인 불행의 치유경험을 공유하게 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로서 화전놀이와 화전가의 심리치료 메커니즘의 작동과정을 보면서 문학치료제로서의 현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덴동어미화전가〉는 치유적 문학 텍스트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이 확인된다.

핵심어 : 화전가, 문학치료, 소통, 공감, 카타르시스, 통찰, 작품서사, 자기서사

1. 머리말

문학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먼저 떠오른 것은 여성가사¹⁾였다. 여성가사가 조선후기 여성들의 삶의 경험²⁾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바, 그 창작과 감상, 향유를 통해 시대적 약자이자 억압적 존재인 여성의 내적 고통을 치유하는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여성가사는 고전시가 장르 가운데 문학치료적 기능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평가된다. 즉 18-19세기 향촌사족층 가문을 배경으로, 여성·남성 등 향유층의 심리적 불안상태의 치료 기능을 담당했다는,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여성가사 작품 및 그 창작과정³⁾을

- 1) 여성가사로 명칭을 통일한다. 또한 문학치료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참고한다.
- 2) 문학작품을 매개로 독자의 마음은 특정 경험에 노출된다. 문학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경험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을 읽을 때만은 자신의 경험을 통합해보려는 의식이 강해지게 된다. 전미정, 「대학생의 자아성찰을 위한 '변형시' 쓰기의 치료적 효능」, 『문학치료연구』 2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38쪽.
- 3) 박경주, 「규방가사 창작에 담긴 문학치료적 기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2008, 111~144쪽. 규방가사를 통한 문학치료 양상을 집단 자가치료, 개인 자가치료, 공동의

살핀 논의가 있다. 또한 ‘한’의 정서를 여성가사의 보편성으로 보고, 계녀가·자탄가·화전가 세 유형을 상호 비교하여, 계녀가를 ‘다독거림의 문학’, 화전가를 ‘기분풀이의 문학’, 자탄가를 ‘분풀이의 문학’으로 규정, 세 유형이 상호보완작용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고, 삶의 의욕을 고무시키는⁴⁾ 등 균형과 절제, 조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논의도 있다.

특히 화전가류는 공동연행과 창작을 통한 상호치료 유형으로, 그 치료적 기능의 핵심이 체험의 공유와 위로에 있음을 입증⁵⁾하기도 하고, 화전가의 의사소통 양상을 통해 그 문학치료적 의미를 고찰⁶⁾하기도 하였다. 또한 화전가를 화전놀이의 한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 축제적 성격과 여성의 유대의식을 살피기도 하였는데, 이 유대감이 나만의 불행이라고 여겼던 ‘삶의 고통’을 치유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바, 화전놀이의 가장 큰 기능이 카타르시스와 공감을 통한 심리적 치유⁷⁾라고 보기도 한다. 화전가를 여성 공동체의 문화적 산물로 접근하여 해방과 연대라는 생애 중요한 경험을 통한 치유적 소통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허약하고 불건강한 자기서사를 공동체와 공유하면서 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바뀌어나가는 일종의 문학치료 행위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전가류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연행(공유), 휴식, 소통, 연대, 놀이성, 풀이성(카타르시스), 위로와 공감에 의한 심리적 치유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억압의 분출, 감성의 폭발, 불만의 하소연 등을 통한 정서적 해방감, 소외감·외로움의 해소 등 공감과 정화를 통해 근심과 응어리를 시원

연행과 창작을 통한 상호치료, 세 가지로 정리하고, 현대 문학치료에서의 활용방안 제시.

- 4) 최상은, 「규방가사의 유형과 여성적 삶의 형상」, 『새국어교육』 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351~380쪽.
- 5) 박경주, 앞의 논문, 125~131쪽.
- 6) 박경주, 「화전가의 의사소통 방식에 나타난 문학치료적 의미」,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209~230쪽.
- 7)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적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2011, 173쪽.
- 8)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가〉의 가능성」, 『한국고시기문화연구』 34, 한국고시기문화학회, 2014, 218쪽 및 232쪽.

하게 풀어줄 뿐 아니라, 쏟아내고 털어 놓는 과정은 같은 처지 여성들의 위로와 동조에 의해 치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화전가에 공감과 위로, 카타르시스를 통한 심리적 치유 효과가 있음이 강조된다.

특히 〈덴동어미화전가〉는 공통적으로, 화전가 중에서 그 문학치료적 가치와 효용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여성들의 소통과 연대를 통한 아픔의 해소가 가장 잘 구현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공동작 화전가 가운데 문학치료적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작품으로 〈덴동어미화전가〉를 들고, 다수의 여성에 의한 윤작 형식 노래입과 청춘과부를 치료대상(내담자)으로, 덴동어미를 상담자 혹은 치료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접근, 그 치료적 효과를 분석⁹⁾하기도 하고, 여성들 간의 자기서사 공유 과정에서 일종의 연대를 통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¹⁰⁾고 보는 등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학치료적으로 접근하여 덴동어미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며, 〈덴동어미화전가〉를 현장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찰¹¹⁾한 논문도 있다.¹²⁾

이상에서 화전가 특히, 〈덴동어미화전가〉의 문학치료적 가치는 어느 정도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동어미화전가〉를 문학치료적

9) 박경주, 「규방가사 창작에 담긴 문학치료적 기능」, 131쪽.

10) 백순철, 앞의 논문, 219쪽.

11) 이병숙, 『문학치료적 측면에서 본 덴동어미의 역할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2) 물론 개가문제, 하층민의 빈곤문제 등 조선후기 사회상과의 관련성(김종철, 「운명의 일 굴과 신명 -〈덴동어미 화전가〉-」,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5, 763~773쪽; 임주탁, 「덴동어미, 불행하지만 누구보다 삶을 사랑한 여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4, 휴머니스트, 2008, 326~339쪽), 서사구조와 그 의미(김용철, 「〈덴동어미화전가〉 연구 (1) -서사구조와 비극성을 중심으로-」,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257~285쪽), 문학적 특징(박혜숙, 「운명과 달관의 서사가사-덴동어미화전가-」,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3, 휴머니스트, 2006, 78쪽) 등, 전통적 여성가사로 접근한 논의들(이들 연구 이전 논의들은 김용철, 앞의 논문, 258쪽에 잘 정리되어 있음)도 있다. 그리하여 〈덴동어미화전가〉를 가사가 여성가사 계열로 발전한 이래 장르 내부에서 전진할 수 있었던 최고점 중의 하나(김용철, 앞의 논문, 284쪽), 우리나라 가사가 도달한 최고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 중의 하나(박혜숙, 앞의 논문, 78쪽)라 극찬한다.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논의에 대한 아쉬움¹³⁾ 때문이다. 즉 작품전체를 참여여성들의 치유과정 및 치유양상에 주목하여 세밀하게 짚어보는 실증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문학치료의 원리 즉 치유의 메커니즘을 적용·분석해 봄으로써 치유의 실상을 체험·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화전기〉들이 그 길이가 짧아서 치유과정과 내용이 압축되거나 생략되어 있는 반면에 〈덴동어미화전기〉는 그 치유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섬세하고 자세하며 극대화된 상태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하면서, 〈덴동어미화전기〉를 대상으로 문학치료¹⁴⁾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공감, 카타르시스, 통찰의 과정¹⁵⁾으로 구체화해 보려 한다. 이 세 가지 심리 치료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경험하고 관찰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학치료의 메커니즘을 공감, 카타르시스, 통찰이라는 심리치료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 놀이의 과정과 향유 및 소통의 양상을 제시할 것이며, 화자 및 주요 인물 그리고 참여여성들과 독자를 중심으로 그 치료과정 및 양상을 실증적으로 조목조목 짚어보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조선후기

13) 규방가사를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의는 박경주가 대표적이다. 박경주는 규방가사 전반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덴동어미화전기〉를 공동작의 대표적 작품으로 접근하지만 설명적·부분적 분석에 그치고 있어, 전체적·구체적·실증적 제시에는 소홀하다는 한계가 있다. 장정수는 ‘화전놀이’에 집중하면서, 백순철은 〈화전기〉 전반에 대한 문화적 접근 중에 특별히 다루고는 있으나, 이들 또한 전체적·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이병숙의 경우, 기존 논의 요약 수준이며, 제목과 달리 문학치료적 측면에 대한 서술이 소략하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친다. 즉 기존 논의 대부분이 개괄적·포괄적이며 치료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경험하고 관찰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작품의 전체적·구체적·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4) 시치료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변학수는 ‘시치료’와 ‘문학치료’가 혼용되는 학계 상황을 제시한 후, ‘Poetry’란 말이 계몽 이전의 계시를 말하는 포에지(poesie)라면 그 현대적 대응어는 문학(literature)이 된다고 했으며, 문학적 창의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문학적 텍스트가 치료에 응용되는 것을 문학치료라고 명명함을 밝히고 있다.

변학수,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6, 17쪽.

15) 전미정, 「치료의 수사학(2) - 시 치료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비유의 세 가지 치료 메커니즘」, 『문학치료연구』 2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93~119쪽.

여성들이 화전가 창작과 향유, 전승을 통해 받았을 위로와 격려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봄으로써 그 현재성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이 곧 문학이며 문학이 곧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문학을 매개로 그 치유에 관심을 갖는 서사이론¹⁶⁾을 통하여 작품의 주요 서사 주체들이 화전놀이를 통해 자기서사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양상에 대해서도 살피려 한다. 병약하고 분열된 서사에서 건강하고 통합된 서사로 변화되는 문학치료의 과정에도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작업은 <텐동어미화전가>의 문학치료적 가치를 보다 구체적·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화전가 향유의 중심에서 작가이자 독자로 참여했던 조선후기 여성들의 경험을 친밀하게 공감함으로써 그 현재성 또한 체감하게 되리라 믿는다. 가사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삶의 양상과 경우들을 거치면서 드러나게 된 여러 심리적·정신적 장애들과 이 장애 극복을 위해 필요했던 문학적 장치들을 총체적으로 간직하고 있기에, 가사의 이해와 감상, 창작 체험은 궁극적으로 삭막하고 개인적인 현대사회에서 공감의 회복→자기 본성의 회복을 거쳐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는 치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¹⁷⁾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 치유의 메커니즘¹⁸⁾

문학치료가 문학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학을 매개로 인간의 심리적 병리상태를 회복·치유할 뿐 아니라, 성숙하게 하고, 삶의 주

16)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쪽.

17) 김은희,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3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68쪽.

18) 이 부분은 주로 전미정, 「치료의 수사학(2)」 및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등의 연구에 기대어 정리된다. 이 두 분의 선행연구는 <텐동어미화전가>에 치유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구체화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체로서 타자와의 소통·상생을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¹⁹⁾이다. 이 글에서는 치유의 과정에 주목, 문학치료의 메커니즘을 공감, 카타르시스, 통찰²⁰⁾의 세 가지로 정리 한다. 공감, 통찰이 심리적 치료에 근거한다면, 카타르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인간의 정서와 관련하여 문학의 본질적 효용성을 의미하는 바, 문학치료의 기본으로 작동한다. 또한 문학에 기반 한 치유이론-서사이론을 통합하여 적용·정리해 봄으로써 치유의 실상 및 치유적 가치를 확인해 본다.

정신분석학 치료 상담은 지지상담과 통찰상담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바, 특히 지지치료는 내담자의 공감이 우선하고 있어 공감치료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심리치료에 있어 공감과 통찰이 얼마나 중요한 치료 메커니즘²¹⁾인지 알게 한다. 카타르시스 또한 문학이 심리치료에 유용함을 입증하는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요소라고 본다. 즉 문학은 그 본래의 기능상 인간의 영혼이나 심리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며, 문학의 심미적 기능 또한 고통과 소외, 기쁨과 슬픔 같은 원초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문학치료에서 작가와 독자의 교감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공감**은 치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심리적 지점이다. 교감은 공감의 일종으로 시의 존재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치료에서 공감은 제일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능력은 문학이 고유하게 지닌 비유의 힘²³⁾에 기인한다. 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비유에 있다. 사랑이나 미움 같은 복잡한 감정도 비유를 빌리면 구체적이 되는 바, 공감의 폭과 깊이를 가늠하게 한다. 공감의 일차적 제공자는 문학자체²⁴⁾가 되지만, 이차적 공감자는 치료에

19) 최소영, 『문학치료학 이론과 실제』, 고요아침, 2016, 12쪽.

20) 니콜라스 마자 저, 김현희 외 공역, 『시치료』, 학지사, 2005, 31쪽에서는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로 정리하기도 한다.

21) 전미정, 「치료의 수사학(2)」, 앞의 논문, 96쪽 참조.

22)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7, 245쪽.

23) 우연히 접하게 된 시 구절이 절묘하게 마음을 정리해주면 짧은 시 구절 하나로 인해 독자는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풀려 시원하게 되기도 한다. 전미정, 「치료의 수사학(2)」, 앞의 논문, 98쪽.

참여한 동료들²⁵⁾이 되는 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공감이 삶에서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은 치료 참여자들의 체험에 의한 증언으로 입증되어 있다.

특히 타인과의 공감을 통해 “나만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는 위로와 격려를,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감이란 나에 대한 타인의 공감, 타인에 의한 나의 공감, 나에 대한 나의 공감 모두를 의미하며, 이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 나에 대한 나의 공감으로부터 얻은 자신감이 타인들에게 마음을 더 많이 여는 계기가 되며, 나에 대한 타인들의 공감으로부터 얻은 자신감은 나에게 마음을 더 많이 여기 계기가 된다. 공감은 긍정적인 정서·신뢰감·친밀감·동질감 등 격려와 지지에 뛰어난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격려와 지지야말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준다. 공감의 주기능인 지지와 격려가 치유의 힘이 되는 것²⁶⁾이다.

카타르시스가 걱정이나 근심의 해소, 감정의 정화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를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이 느낀 카타르시스는 위안, 가벼워짐, 해소, 후련함, 시원함, 이해받은 느낌, 동질감 등 정서적 변화로 드러나는 바, 문학이 억눌리거나 억압된 감정을 배출하는 결정적인 출구가 되고 있음이다. 여기서 다시 주목되는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적, 수사학적 우수함이 카타르시스에 더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²⁷⁾이다. 문학이 차가운 머리보다는 뜨거운 가슴에 호소하는데, 특히 아름다운 비유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장치라는 주장이다. 비유는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기제이다. 무의식의 과정은 정서적으로 채워져 있고 대부분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24) <덴동어미화전가>의 경우, 현장에서는 덴동어미 이야기, 전승 및 현재적 의미로는 작품 전체.

25) <덴동어미화전가>의 경우, 현장에서는 화전놀이 참여여성들, 전승 및 현재적 의미로는 독자들.

26) 전미정, 「치료의 수사학(2)」, 앞의 논문, 100~102쪽.

27) 아리스토텔레스, 김재홍 옮김, 『시학』, 고려대출판부, 2006, 59쪽(전미정, 「치료의 수사학(2)」, 앞의 논문, 104쪽 재인용).

동기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비유가 지닌 정서적 기능을 고려할 때, 비유는 무의식에 있는 정서들을 교정하는 기폭제가 되며, 그 과정을 통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것이다. 비유가 카타르시스라는 치료적 메커니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정서로 채워져 있는 무의식의 특질 때문이다.²⁸⁾

알아차림은 심리치료에서 최우선적 목표이다. 이 알아차림이 세 번째 문학치료 메커니즘이다. **통찰**은 자신의 욕구나 감각, 감정, 생각, 행동, 환경, 상황 등을 방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각·체험하는 행위를 뜻한다. 통찰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왜냐하면 통찰이야말로 정신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통찰의 첫 번째 기능은 내가 모르던 무의식을 아는 것이며, 통찰의 두 번째 기능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세계를 확장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유는 또 다시 그런 방향으로 세상을 경험·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뛰어난 기법이다.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극복하는 길은 세계를 해석하는 습관을 깨뜨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통찰은 자아성찰로 이어진다. 읽기의 과정에 독자의 경험과 역사가 암암리에 침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작품은 독자 자신의 삶과 연계된 고유한 의미를 재생산하게 된다. 이처럼 문학은 작가의 경험을 추체험함과 동시에 독자의 경험을 추체험하는 데서 완성된다. 통찰이야말로 심리치료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지점이다. 우리는 통찰을 통해 삶의 질서와 의미를 복원함으로써 참되고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²⁹⁾

여기서 공감과 카타르시스는 정서적 기능, 통찰은 인지적 기능으로 볼 수 있으며, 상호적으로 작동할 때 치료효과가 있다. 즉 공감과 카타르시스는 인지적 기능에 힘입어, 통찰은 정서적 기능에 힘입어 극대화된다. 공감과 카타르시스와 통찰은 정서와 인지를 횡단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한다. 이것이 바로 자아

28) 이를테면 “편안한 느낌이에요”보다는 “흐드러지게 핀 꽃나무 그늘아래 있는 것 같아요”라는 비유어가 마음을 훨씬 편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치유 참여자의 토로 등 사례에서 확인된다.

29) 전미정, 「치료의 수사학(2)」, 앞의 논문, 107~110쪽.

성찰의 촉매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이야말로 자아성찰의 요건이다. 과거경험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는 길이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리고 감정의 추체험이야말로 감정정리에 효과적이다. 정서와 인지의 교차는 자아성찰로, 자아성찰은 자아실현으로 이어진다. 자아실현은 감정과 사고가 긍정적으로 통합되는 지점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공감과 카타르시스와 통찰은 경계 자체가 의미 없음을 잘 보여준다. 서로를 자력처럼 끌어오는 정서와 인지의 성질이 그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공감, 카타르시스, 통찰이 자아성찰을 가속화하는 데 뛰어나며, 쓰기³⁰⁾가 그런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아성찰이 행복감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심리치료가 추구하는 이상이 자아실현과 행복감의 극대화임을 주목한다면, 그것의 토대가 되는 자아성찰을 고무하는 문학작품 읽기³¹⁾야말로 치료적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소통과 자아성찰의 궁극점은 모두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격체의 완성이라는 점이다.³²⁾

이제 **서사이론**을 살펴본다. 문학치료학에서 서사는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의한다. 기존의 문학연구와 달리 문학치료학은 이러한 의미의 서사에 초점을 맞춘다. 병든 ‘서사’를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가 문학을 창작·감상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자기서사의 변화를 갈구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문학작품의 존재이유는 자기서사의 변화에 있고, 문학치료학에서는 언제나 서사를 통하여 사태를 이해하게 된다고 본다. 문학작품의 근저에는 작품서사가 있고, 작가 및 독자의 내면에는 자기서사가 있으며, 자기서사와 작

30) 이 글에서는 말하기, 특히 ‘뉘동어미의 자기서사 이야기하기’를 포함하는 의미로 접근한다.

31) 전미정, 위의 논문에서는 ‘문학교육’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곧 문학 감상(+창작)을 전제하고 있기에 이 글의 논지에 맞추어 ‘문학작품 읽기’로 바꾸었다.

32) 전미정, 「대학생의 자아성찰을 위한 ‘변형시’ 쓰기의 치료적 효능」, 앞의 논문, 137~152쪽.

품서사 사이의 간극과 불일치가 자기서사의 변화를 추동하고, 다시 작품서사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작품이나 인생에 대한 이해가 점차 변화하고 성장해간다고 보는 것이다.³³⁾

따라서 ‘서사의 주체’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바, ‘서사의 주체’는 작품을 다각도에서 총체적으로 분석·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의 작품에서 서사의 주체는 적어도 등장인물 수만큼 생기게 되며, 등장인물 수만큼 많은 서사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마련이며,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상대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³⁴⁾ 문학작품의 존재이유는 곧 자기서사의 변화에 있는 것이다. 감상하고 있는 작품의 작품서사나 창작 작품의 작품서사가 감상자나 창작자의 자기서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때문에 자기서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상담자와 피상담자가 함께 만들어 낸 대화의 흐름도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대화라는 작품의 작품서사 역시 자기서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때문에 자기서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만남은 그 자체로 이미 두 사람의 자기서사가 만나는 상황이 된다. 자기서사의 변화는 결국 자기서사의 보충과 강화와 통합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작품서사가 자기서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작품서사와 자기서사 사이에 상동성이 있을 때이다. 상동성이 공감과 감동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 공감과 감동은 서사의 공명(共鳴)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작품서사와 자기서사가 동일하다면 감상자의 자기서사가 공명할 것이며, 이 공명현상을 체험하는 동안 공감을 하게 될 뿐 아니라 감동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자기서사의 변화는 공명, 공감, 감동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감동에 이를 때 자기서사의 변화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³⁵⁾

33)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 『영화와 문학치료』 3, 서사와 문학치료 연구소, 2010, 317쪽, 320~321쪽 및 329쪽.

34)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와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2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38~242쪽.

35) 정운채, 「자기서사의 변화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

3. 치유의 과정

〈텐동어미화전가〉는 화전놀이에서 구연(口演)된 한 여인의 일생담이 사실적으로 들어있는 작품으로서, 직접체험의 서술을 공유하고 노래하는 화전가 향유의 현장성이 두드러질 뿐 아니라, 모여 앉아 공개적으로 숨김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토로하고 경청하면서, 공감하고 격려하며, 여성들이 고통과 시련을 치유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는 화전가가 향유되는 진정한 장면³⁶⁾라고 평가받을 만큼 화전가 향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화전놀이 참여여성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먼저, 〈텐동어미화전가〉 작품서사의 주체인 시적 화자가 있으며, 일생담을 토로함으로써 무죄한 자신에게 닥친 운명의 횡포에 대한 서러움과 억울함을 풀어냄으로써 감정적으로 승화되고 통찰에 이르는 텐동어미, 남편을 잃고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심적 고통을 하소연하지만, 텐동어미의 일생담을 듣고 공감적 통찰과 카타르시스에 이르는, 봄춘자 노래로 카타르시스의 정점에 이르는, 청춘과부가 보인다.

많은 부분이 텐동어미 일생담이라서, 직접 드러나지는 않으나, 화전놀이 참여자로서, 청중이자 독자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있다. 어떤 부인들, 상단이, 삼월이, 취단이, 향단이 등 하녀들, 몸단장에 등장하는 16-7세의 젊은 신부, 가난한 부인, 늙은 부녀, 젊은 부녀, 늙은 과부, 젊은 과부, 새댁, 노부인, 내칙편 외우는 칠월편을 노래하는 화전가 잘 부르는 사대부가 부인들이 보이며, 이들 중 청춘과부에게 말 건넴으로써 슬픔을 알아차려 주고, 공감하면서 그녀의 상처를 이끌어내는 한 부인과 모두가 카타르시스의 극점에서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시점에 등장하는 꽃화자 노래 부르는 소낭자 등, 신분의 고하, 나이의 많고 적음, 행불행여부에 상관없이 다양한 여성들이 너나없이 모두 함께하고 있는 축제의 현장이 보인다.

구』 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368~376쪽.

36) 백순철, 앞의 논문, 231~232쪽.

덴동어미 인생유전 속에도 그녀의 삶에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여성들이 있다. 덴동어미와 두 번째 남편이 결식할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고, 더부살이하도록 도와주는 경주 객주집 주인마누라, 덴동어미보다 고생한 체험을 털어놓으며, 위로와 공감으로 덴동어미 마음을 움직여 함께 살게 되는, 세 번째 남편 황도령,³⁷⁾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황도령이 죽은 후, 절망감으로 죽으려는 덴동어미를 위로하고 4번째 남편 조서방을 소개해주는 주인댁, 불났을 때 아이를 구해오고, 덴동어미에게 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이웃집 여인, 귀향 후 덴동어미의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는 친척 노인 등이 보인다.

화전놀이와 함께 하면서도 직접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은 이들이나, 덴동어미의 인생유전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함께 모여앉아 소통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자신의 불건강한 감정을 해소하며 통찰하는 심리 치료 과정의 참여자로 보아도 될 듯하다. 화전놀이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자율적·개방적 놀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며 특히 덴동어미의 인생담 속 다양한 삶의 고통들에 일정부분 그들의 각각 다른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었을 것이기에 그러하다.

이제 <덴동어미화전기>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 참여자들의 치유과정을 구체적·실증적으로 확인해 본다.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덴동어미화전기>에는 여러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주로 자기서사³⁸⁾ 서술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의 주체는 (1) 덴동어미 (2) 청춘과부를, 참여자들로서 (3) 화자 및 화전놀이 참여여성 그리고 독자³⁹⁾의 세 층위로 정리해 본다. 다만 여성들이 함께 모여 화전놀이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해방감과 봄을 맞이한 기쁨을,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설움과 고통 등 상처를 드러내고 토로하는, 모순되는 감정과 인식이 교차하는, 공유와 연대, 소통의 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37) 남성이지만 죽을 고비를 이겨낸 체험으로 덴동어미의 설움을 달래주고 그녀가 다시 살아볼 마음을 갖게 하며, 소통과 치유에 도움을 주는 인물이기에 관찰에 포함시킨다.

38) 물론 각자의 자기서사는 듣는 이들이나 독자에게는 동시에 작품서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작품서사나 자기서사는 서사 주체의 위상에 따라 달라질 뿐, 본질적으로 상호 이해를 통해 변화된다.

39) 독자는 조선후기 화전기를 향유·전승했던 여성들이기도 하고, 현대 독자들이기도 하다.

할 것이다. <덴동어미화전가>는 일반 화전가⁴⁰⁾와는 좀 다른 구성을 보인다. 즉 서사에 이어지는 신변탄식, 택일, 통문 돌리기, 시부모 승낙 얻기 등이 생략되어 있으며, 덴동어미 등의 하소연과 놀이가 극대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도 <덴동어미화전가>가 기존 화전가들 보다 여성 공동체의 치유과정이 강화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1. 덴동어미 - 자기 치유의 말하기

덴동어미는 화전놀이 참여에 적극적이며, 멋지게 잘 노는 여인이다. 춤과 노래로 웃음이 낭자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이다. 나중에서야 긍정적이고 밝은 그녀의 모습이 슬한 고생 경험담 토로 끝에 도달한 통찰, 삶에 대한 달관으로부터 비롯된 여유와 신명임을 알 수 있다.

건너집의 덴동어미 옛한고리 이고가서/가지가지 가고말고 낸들어찌 안가릿가
(330)⁴¹⁾ ... 그 중에도 덴동어미 멋나게도 잘도놀아/춤도추며 노래도하니 웃음소리
낭자한테 (332)

덴동어미의 경우, 타인에 의한 나의 공감, 즉 청춘과부의 그리움과 외로움, 슬픔에 대한 위로와 공감에서 그 치유를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은 청춘과부보다 훨씬 힘들었던 자기의 일생담을 토로하는 것이다. 개가를 고민하는 청춘과부에게 여러 번에 걸친 개가 경험과 깨달음을 말해 줌으로써 청춘과부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다.

덴동어미 듣다가서 썩나서며 하는말이/가지마오 가지마오 제발적선 가지말게/
팔자한탄 없을까마는 가단말이오/왓만나도 내팔자요 못만나도 내팔자지/

40) 권영철, 『규방가사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59쪽. 17단계로 정리되어 있음.

41) 원문은 <덴동어미화전가>,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99, 307~333쪽 참고. 직접인용은 박혜숙, 「주해<덴동어미화전가>」, 『국문학연구』 24, 국문학회, 2011, 325~370쪽 활용. 이후 작품 끝에 페이지를 적는 것으로 각주를 대신한다.

백년해로도 내팔자요 십칠세청상도 내팔자요/팔자가 좋을랑이면 십칠세에 청상
될까/신명도망 못할지라 이내말을 들어보소 (334)

일생담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는 나(덴동어미)에 대한 나의 공감미 이루어지는 바, 이로부터 얻은 자신감이, 이야기가 끝난 후 이루어지는 덴동어미(나)에 대한 타인(청춘과부, 다른 참여자들)의 공감으로부터 얻은 자신감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타인의 마음을 더 많이 열게 하는 계기가 되며, 덴동어미 자신의 마음 또한 더 많이 여는 계기가 된다. 덴동어미는 이야기하면서 슬픔과 고통이 해소되고, 마음이 정리되면서 내적 성장에 도달한다. 통찰을 통해 부정적이었던 삶의 질서와 의미가 복원되는 자기치유의 말하기인 것이다. 치유는 일생담 이야기하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기 공감의 확대·카타르시스의 경험·지혜의 심화를 통한 자존감 회복·운명예의 통찰과 청춘과부 등 타인과의 공감·카타르시스·통찰에 의해 이루어지는 긍정적 자기서사의 변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직접체험으로 타인을 위로함으로써 치유로 이끌어가는 것이다.⁴²⁾

1번의 결혼과 3번의 개가라는 운명적 삶에서 만난 덴동어미의 남편들은 처음 2명은 사대부들(“먼저연은 두낭군은/홍문안의사대부요(346)”)이었고, 나중의 2명은 떠돌아다니며 장사하는 도부, 엿장수 등으로 하층민이었다. 죽음의 이유도 그저 개인적인 불행(우연한 사고-그네 추락사)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재앙(괴질) 때문이기도 하고, 자연재해(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실수로 인한 재앙(화재) 등 조선후기라는 시대에 국한되는 불행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삶에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불행이라는 점은 공감적 치유와 관련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볼만 하다.⁴³⁾ 덴동어미는 이 모든 불행을 팔자 때문으로 치부하는 바, 운명론으로 귀결되는 의미 또한 누구에

42) 박혜숙 편역, 『덴동어미화전가』, 돌베개, 2011, 39쪽에서는 이를 타인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것, 더 큰 슬픔으로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는 따뜻한 인간애로 분석한다.

43) 물론 이를 조선후기 사회상과 관련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김종철 등 기존논의 참고.

게나 일어날 수 있는 고난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이제 텐동어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녀가 자신의 경험에 의해 성장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며, 궁극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방님이 그말말고 이전일도 생각하계/궁팔십 강태공도 광장삼천조 하다가서/
주문왕을 만난후에 달팔십 하여있고/표모기식 한신이도 도중소년 옥보다가/한고
조를 만난후에 한중대장 되었으니/우리도 이리해서 벌어가지고 고향가면/이방을
못하며 호장을못하오 부러울게 무엇이오 (339)

중매로 만나 개가한 두 번째 남편이 한꺼번에 큰 빚을 갚느라 파산하는 바람에 걸식하다가, 군노가 하는 객주집 더부살이를 제안 받고 괴로워하며 못하겠다는 남편을 설득하는 장면이다. 강태공과 한신이라는 비유를 통해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남편의 모욕감과 괴로움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재기할 수 있다는 통찰이 작용하고 있다.

주인마누라 궁축하여 ... 하는말이/그대양주를 ... 걸식할사람 아니로세/본디어
느긋 살았으며 어찌하여 저리됐나 (338) 주인이 ... 하는말이 심바람만 잘하고보
면/ ... 선량돈을 더주오리 (340)

텐동어미 부부가 걸식할 사람이 아님을 알아보고, 더부살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경주 객주집 주인마누라의 알아차림은 텐동어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갈 힘을 준다.

병술년 괴질 닳쳤구나 ... / ... 다죽고서 주인하나 나하나뿐이라/ ... /날만하나
이곳두고 죽단말이 웬말인가/ ... 서방님이 살뜰이도 불쌍하다/이럴줄을 짐작하
면 천집사를 아니하지/오년작정 하올적에 잘 살자고 한일이지/울면서로 마달적에
무슨대수로 세워던고/군노놈의 무지욕설 꿀과같이 달게듣고/수화중을 가리짚고
일호라도 안어졌네/ ... /조물이 시기하여 귀신도 야속하다 (342)

괴질로 죽은 남편을 보며 울부짖는 덴동어미의 탄식은 싫다던 일을 강요했다는 자책, 근노의 욕설도 참아내며 물불 가리지 않고, 오직 5년을 작정하고 열심히 일했던 남편의 성실함과 그래서 더 불쌍한 삶에 대한 공감과 통찰을 통해 슬픈 운명에서의 깨달음으로 표출된다.

울산읍내 황도령이 날더러 하는말이/여보시오 저마누라 어찌저리 설워하오/하
도나 신세곤궁키로 이내마음 비창하오/아무리 곤궁한들 날과같이 곤궁할까 (342)
... 왈각덜컹 파도일어 천둥끝에 벼락치듯/물결은출렁 산뎀같고 하늘은깜깜 안보
이네/수천석실은 그큰배가 회리바람에 가랑잎 뜨듯 (343) ... 풍랑소리 벽력되고
물사품이 운애되네 ... 본정신이 돌아와서 눈물울음도 이제나네 (344)

유일한 남성으로, 고생한 체험담으로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살게 되는 세 번째 남편 **황도령** 만나는 장면이다. 황도령의 공감적 이해와 위로를 통해 ‘나만 힘들게 산 것이 아니’라는 통찰에 이어지는 슬픔의 카타르시스는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는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된다. 황도령의 시련은 비유를 통해 실감나게 다가온다. 덴동어미 못지않은 황도령의 고통스런 경험(작품서사)에 덴동어미의 자기 경험(자기서사)이 통합되면서 일시적 치유에 도달하며, 다시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날도 살았는데 설워마오 우지마오/ ... 내설움만 못하오리/ ... /가련한사
람 서로만나 같이늡으면 어떠하오/가만이숨숨 생각하니 먼저얻은 두냥군은/홍문
안의사대부요 큰부자의 세간/꽤가망신 하였으니 흥진비래 그러한가/저총각의 ...
육대독자 내려오다가/죽을목숨 살았으니 고진감래 할까보다/마지못해 허락하고
손잡고서 이내말이/우리서로 불쌍이여겨 허물없이 살아보세 (346-347)

내 설움이 덴동어미의 설움보다 더하다는 황도령의 위로와 통찰은 덴동어미의 공감과 통찰로 이어지면서 서로 불쌍히 여겨 함께 살아 보겠다는 결정에 도달한다. 황도령의 더한 시련 이야기를 통해 덴동어미의 고통은 해소 - 일시

적이긴 하지만- 되면서 지위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흥진비래임이 분명한 앞의 두 낭군보다, 육대독자가 죽을 목숨 살았으니 행운이요, 그래서 이제 고진감래 할 수 있으리라는 긍정적 통찰에 도달, 다시 결혼하게 된다.

망측하고 기막힌다 이런팔자 또있는가/ ... /그주막에 나있었던면 같이따라가 죽을것을/먼저괴질에 죽었으면 이런일을 아니볼걸/고대죽을걸 모르고서 천년만 년 살자하고/도부가 다무엇인가 ... /해얹없이 앓았으니 역장이무너져 기막힌다/ 죽었으면 줄너구만 생한목숨이 못죽을레라 (348)

“살아있는 목숨이라 못 죽을” 것이라는 말에는 끈질긴 삶의 의욕이 보인다. 이처럼 잠깐씩 드러나는 순간적 통찰은 삶이 진행되면서 고통의 경험이 쌓이고 또 쌓여, 60살 이후에는 달관의 지혜에 도달한다. 또한 이런 태도는 청춘과부의 현실적 고통을 위로하고 카타르시스와 통찰로 이끌어가는 치유의 기능을 한다. 세 명의 남편을 잃고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덴동어미에게서 상대적으로 덜한 자신의 불행에 안도하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아니먹고 굶어죽으랴하니 **그집댁**네가 강권하네/죽지말고 밥을먹게 ... (348) **주인댁**이 하는말이 팔자한번 또고치게 /세번고쳐 곤한팔자 네번고쳐 잘 살는지/세 상일은 모르나니 ... 저꽃나무 두고보지/이삼월의 .../오뉴월 .../팔구월에 .../동지설달 설한풍에 ... 자네신세 생각하면 설한풍을 만남이라/ ... 좋은바람을 기다리게 ... 귀동자하나 나하시면 수부귀다자손 하오리다 (348-349) ... 춘풍이불어야 꽃이피지/때아닌전에 꽃피던가 때를만나야 꽃이피네/ ... /이뒷집의 조서방이 ... /먼젓달에 상처하고 ... /자네팔자 또고쳐서 내말대로 사다보게 (349-350)

황도령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죽은 후, 절망감에 죽으려는 덴동어미를 위로하고 4번째 남편 조서방을 소개해주는 주인댁 또한 덴동어미의 고통에 공감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인물이다. 이는 덴동어미와 청춘과부처럼 보이기도 한다. 청춘과부처럼 불행에 절망하는 덴동어미에게, 주인댁은 덴동

어미처럼, 생을 꽃나무의 사시 변화로 표현한 비유적 통찰을 통해, 좋은 바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춘풍이불어야 꽃이피지/때아닌전에 꽃피던가 때를만나야 꽃이피네”라고 자연의 이치에 비유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고, 슬픔과 절망의 카타르시스를 도모하며, 다시 살아볼 것을 설득한다. “세번고쳐 곤한팔자 네번고쳐 잘 살는지” 모르니 다시 한 번 결혼하라고 권유한다.

덴동어미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비유에 있다. 좌절, 슬픔, 모욕감, 절망, 불안 등 복잡한 감정도 비유를 빌리면 구체적이 되는 바, 공감, 카타르시스, 통찰의 폭과 깊이를 더해준다. 비유는 이야기 듣는 청춘과부, 화전놀이 참여여성들, 그리고 독자들까지, 그 인식과 정서적 카타르시스, 공감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 이웃집에 누웠으니/덴동이를 안고와서 ... /지성으로 하는말이 ... /이사람
아 정신차려 어린아기 젓먹이게/ ... 그어미라야 살려내지 ... /조침지를 생각거든
일어나서 아살리게/어린것만 살고보면 조침지사못 안죽었네/그덥네말을 옮겨듣
고 마지못해 일어앉아/약시세하며 젓먹이니 ... 갖은병신이 되었고나 ... 지난일
도 기막히고 이앞일도 가련하다/건널수록 물도깊고 넘을수록 산도높다 (353)

덴동어미에게 또 다른 불행이 덮쳐온다. 옛을 만들다가 불이 나서 남편은 죽고, 아이는 불에 데어 병신이 되어 버린다. 이 때, 아이를 구해오고, 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성으로 설득하는 또 다른 여인, 이웃집 여인의 목소리다.

이쯤에서 우리는 덴동어미가 그저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위로를 얻게 된다. 불행에 처할 때마다 그녀의 처지에 공감하고 연민으로 위로하며,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삶을 포기하려는 그녀에게, 이웃집 여자는 “지성으로” “이사람아 정신차려 어린아기 젓먹이게” “그어미라야 살려내지” “조침지를 생각거든 일어나서 아살리게” “어린것만 살고보면 조침지사못 안죽었네”라고 경험에서 우러나는 삶에 대한 통찰과 덴동어미의 슬픔에 대한 공감으로 말을 건네고, 진실 되게 정성껏 돌봄으로써 덴동

어미를 “옹게듣고 마지못해 일어안자” “약 먹고, 젓 먹이면서” 살고자 하는 깨달음으로 이끈다. 공감과 위로가 통찰을 통한 치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다.

반복적인 여인들의 도움이 금전적인 도움이라기보다는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는 통찰과 공감이라는 점은 중요하다. 여기서 여성들의 연대와 여성공동체가 지닌 치유의 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불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여성들에게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내미는 공감적 이해와 경험의 축적에서 얻은 통찰은 서로를 치유하는 통로로 작용했음을 보면서 청춘과부, 화전놀이 참여여성들, 그리고 독자들 모두 위로받기 때문이다.

여인들의 위로와 공감은 덴동어미가 적극적으로 청춘과부의 상처를 치유하는 통찰에 이르게 하는 경험이다. 덴동어미의 경험들은 매번 주변의 긍정적인 사람들에 의해 그녀의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가능하게 하고 통찰이 깊어지게 하는 바, 그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자신의 인생담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누적되었던 고통의 카타르시스가 차곡차곡 이루어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에 대한 총체적 달관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육십이라 늙어지니 더욱슬의/ ... 이렇게도 할수없고 저렇게도 할수없다/덴동이를 뒤틀어업고 본고향을 돌아오니 ... 인정물정 다변했네 ... 후회막급 어이할고야 (354) /... 새 보기도 부끄러워/ ... 이내한번 못잘살고 내신명이 그만일세/첫째낭군 죽을때에 나도한가지 죽었거나/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가지나 말았다면/... 나도수절만 하였다면 ...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걸 (355)

고향에 돌아온 육십의 덴동어미는 “후회막급”하다고 한탄한다. 속절없이 늙어버린 자신의 삶, “이렇게도 할수없고 저렇게도 할수없음” 삶에 대한 회한이다. 자신의 선택 탓으로 돌리고 있다. ① 수절하지 못함과 여러 번의 개가를 “부끄러워”한다. “수절만 하였다면” “남이라도 칭찬하고 불쌍하게나 생각할” 것이라고 개탄한다. 덴동어미에게 유일한 잘못은 “첫째낭군 죽을때에” 같이 죽었거나, “살더라도 수절하고 다시가지나 말았”어야 한다는 깨달음인 것이다. 이

러한 통찰은 좌절과 실패와 불행의 연속이었던 자기 삶에 대한 기존 여인들의 경험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성 위주의 조선사회에서 하층의 가난한 여성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번의 개가임에도 불구하고, 관념적으로는 당대의 수절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⁴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자기 스스로 발전해간다. 직접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 달관의 경지로 승화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의 카타르시스와 통찰은 춤과 노래의 신명 속에, 화전놀이⁴⁵⁾에 참여한 다른 여인들, 독자들, 직접적으로는 청춘과부의 심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도달한다.

한바탕실컷 우다가니/모르는**안노인** 나오면서 어쩐사람이 슬어우나/울음그치고
말을하게 사정이나 들어보세/내설음을 못이겨서 ... 우나니다/ ... 어찌그리 설워
하나 (355) ... **그노인**이 민망하여 ... 이곳에오니 더서럽소/ ... 그집이벌써 결판나
고 지금아무도 없나니라/더군다나 **통곡**하니 ... /그러나저러나 들어가세 ... **그노**
인과 한테자며/이전이야기 대강하고 신명타령 다못할레 (356)

고향에 돌아와 상실감과 회한으로 울고 있는 덴동어미에게 모르는 안노인이 다가와 말을 건넨다. 노인의 관심과 알아차림은 공감의 표현이며, 덴동어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하고 서럽게 통곡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카타르시스에 이르도록 돕는다.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외롭고 가난하며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 따뜻하게 말 건네며 묵묵히 들어주는 노인은 인생 끝에서 다시 한 번 설움을 해소하고 살아볼 힘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다.⁴⁵⁾

여기까지 덴동어미의 인생유전은 마무리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덴동어미의 인생론과 깨달음의 토로는 눈여겨볼만한 내적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청춘과부의 위로와 치유를 위해 시작한 이야기는 자신의 내적 공감과 통찰, 카타르시스

44) 박혜숙 편역, 『덴동어미화전가』, 돌베개, 2011, 115~116쪽.

45) 작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곧 이어 청춘과부를 향한 직접적 권유와 삶에 대한 통찰이 전개되고 있으나, 덴동어미가 고향에 살고 있으니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에 의해 스스로의 고통과 상처를 동시에 치유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다.

세상의별고생 다해봤네/살기도 억지로못하겠고 재물도 억지로못하겠네/고약한신명도 못고치고 고생할팔자는 못고칠레/ ... /옳은사람 되어있어 남에게나 칭찬듣지/청춘과부 갈라하면 양식싸고 말릴라네/고생팔자 타고나면 열번가도 고생일레/이팔청춘 청상들아 내말듣고 가지말게 (356)

옳은 사람은 수절한 여인이고, 그른 사람은 자기처럼 개가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쏟아낸다. 청춘과부에게 고생할 팔자를 못 고칠 바에는 개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다. 물론 이는 텐동어미의 직접 경험에서 나온 통찰이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어 아직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공감에 이르지 못한 듯하다. 사대부가 여성들 앞에서 일생담을 풀어 놓다 보니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먼저인 것이다. 그러나 ② “살기도 억지로못하겠고 재물도 억지로못하겠”다는 인식, “고약한신명도 못고치고 고생할팔자는 고생”한다는 인식은 보다 본질적인 삶에 대한 통찰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 근거가 당대 여성을 지배하던 수절 이데올로기에서 아직은 자유롭지 못하다.

팔자는 고쳤으나 고생은 못고치데/고생을 못고칠제 그사람도 후회나리/후회난들 어찌할고 죽을고생 많이하네/큰고생을 안할사람 상부버팀 아니하지/상부버팀하는사람 큰고생을 하나나리/내고생을 남못주고 남의고생 안하나니/제고생을 제가지 내고생을 누를 줄고 (357)

이제 텐동어미의 인식은 수절 긍정 ↔ 개가 반대, 수절 옳고 ↔ 개가 잘못이라는 단순하고 이원적이며 대립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인식의 통합을 보여준다. 결국 자기 고생은 남 줄 수 없음에, 자기 고생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는 운명의 겹쳐진 수용으로 발전한다. 인간의 실존적 조건으로서의 불가해하고 불합리한 운명, 극복 불가능한 운명에서의 순응에 도달한다.

호강살이 제팔자요 고생살이 제팔자라/ ... /내팔자가 사는대로 내고생이 담는 대로/좋은일도 그뿐이요 그른일도 그뿐이라/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왔거들랑/꽃빚을랑 곱게보고 새소리는 좋게듣고/밝은달은 예사보며 맑은바람 시원하다/좋은동무 존놀음에 서로웃고 놀다보소 (358)

③ “호강살이도 제팔자” “고생살이도 제팔자”라고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운명론은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왔으니” “좋은동무 좋은놀음에 서로웃고 놀다가자”는 긍정적 깨달음으로 통합되면서 궁극적인 자기 치유에 도달한다.

맘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잡으면/꽃은절로 피는거요 새는여사 우는거요/달은매양 밝은거요 바람은일상 부는거라/마음만 여사태평하면 여사로보고 여사로듣지/보고듣고 여사하면 고생될일 별로없소 (358-359)

텐동어미는 평생 동안 슬한 시련과 좌절, 고통을 겪었지만, 늘 자신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이들의 위로와 매 상황에 따른 카타르시스와 통찰을 통해 삶의 고비들을 넘기며 살아온다. 매번 치유의 경험 끝에 얻은 깨달음들이 쌓이고 쌓여, 이제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한다. ④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으며, 그 마음만 잘 잡으면, 마음만 여사태평하면 꽃 때문에, 우는 새 때문에,⁴⁶⁾ 밝은 달 때문에, 부는 바람 때문에 마음 아플 일 없고, 서러울 일 없다는 달관을 표현함으로써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눈여겨 볼 것은 61행이나 되는 길이로 길게 표현되는 텐동어미의 교훈적 조언이다. ① 수절 긍정 ↔ 개가 반대라는 상투적이고 현실적인 인식에서 시작되지만, ② “살기도, 재물도 억지로못하겠”다던 인식, “고약한신명도 못고치고 고생할팔자는 고생”한다는 본질적 삶에 대한 통찰로 깊어진 후, ③ 호강도 고생도 제 팔자라고 다시 한 번 강조되는 운명론은 “춘삼월 호시절에 화전놀음 왔으니” “좋은동무 좋은놀음에 서로웃고 놀다가자”는 화전놀이의 본질에 대한

46) 청춘과부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 꽃핀걸보아도 비참하네”란 하소연에 대한 위로의 의미이다.

긍정적 깨달음으로 통합되면서 ④ “맘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잡으면” “고생될일 별로없다”는 달관에 도달한다.

“맘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맘잡으면” “고생될일 별로없다”는 통찰을 통해 수절 못한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운명의 수용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절하면 자랑거리이고 개기하면 부끄럽다는 현실적이고 당대적인, 부당하고 근시안적인 인식을 뛰어넘는, 텐동어미 스스로 개기를 선택한 실질적인 삶과 수절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회한으로서의 부끄러움이라는 내적 갈등을 초극하는 최고의 깨달음, 자존감의 회복,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 통찰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통찰에 의한 긍정적 자아회복, 건강한 자기서사의 회복이라 보아도 될 듯하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자신에 대해 공감함으로써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자신에 대한 공감은 텐동어미의 인식을 확장하게 하였고, 성취감을 통해 감정과 사고가 긍정적으로 통합되는 지점에 도달한다. 삶의 문제는 결국 자신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화전놀이 참여여성들과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평범한 여성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삶에 대한 최고의 인식, 인생에 대한 총체적 달관에 이른 통찰은 지식에 의해 얻은 교훈이 아니라, 직접경험의 승화로 얻은 통찰이라는 점에서 그 치유의 힘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치유가 문학이 담고 있는 경험내용에 의해서 즉 과거 경험한 자신의 슬픔이나 분노를 생생하게 재경험하고 그것이 교정될 때 일어나는 것임을 텐동어미의 삶과 그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2. 청춘과부 -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통합

청춘과부는 화창하고 아름다운, 만물이 소생하고 모두가 짝을 찾는 봄날, 청춘과부로서의 슬픔을 하소연함으로써 자기서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열일곱살 청춘과녀 나도같이 놀러가지/ ... 단장할마음 전혀없어/때나없이 세수

하고 거친머리 대강만저/늦비녀를 슬쩍꽂아 ... /광당목 반물치마 ... 흰저고리/
... /대강대강 수습하니 어린무던 관기차네 (330) ... 덴동어미 ... 웃음소리 낭자
한데/그 중에도 청춘과녀 눈물콧물 귀귀하다 (332)

17살 청춘과부는 단장할 마음 없이 우울하다. 대충 세수만 하고 거친 머리
도 대강 만지고, 무명치마에 흰 저고리, 차림새에도 별 상관하지 않는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것이다. 춤과 노래, 웃음소리 낭자한 사람들 속에서 서럽고 외
로운 것이다. 즐겁게 준비하고 흥성거리는 화전놀이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고
독감이 눈물 콧물이라는 행동과 차림새로 표출된다.

한부인이 이른말이 좋은풍경 좋은놀음에/무슨근심 대단해서 낙루한심 웬일이
오(332)

한 부인의 알아차림에서 청춘과부의 치유가 시작된다. 공감적 이해의 시작
점이다. 말을 건넌으로써 청춘과부의 상처가 드러나게 되며, 이어지는 청춘과
부의 하소연과 화자를 포함, 한 부인과 덴동어미 그리고 화전놀이에 참여한 주
변 여인들의 경청으로 상처에 대한 치유가 진행된다. 나에 대한 타인들의 공감
에서 얻은 자신감은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나건으로 눈물뒹고 내사정을 들어보소/열네살에 시집올때 ... /겨우삼년 둥거
하고 영결종천 이별하니/ ... /방정맛고 가련하지 ... / ... 자나깨나 잊을손가/...
마음 돌데없어 이리저리 재든차에/화전놀음이 좋다하기 심회를 조금풀까하고/자
네를따라 참여하니 촉처감창 뿐이로세/보나니족족 눈물이오 듣나니족족 한심일
세/ ... 나는어찌 짝이없나/새소리들어도 회심하고 꽃핀걸보아도 비창하네/애고
답답 내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나/가자하니 말아니오 아니가고는 어찌할고
(332-334)

화전놀이의 치유적 기능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청춘과부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화전놀이 참여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심회를 조

금 풀까하고 참여했는데 슬픔이 여전하고 외로움에 답답함을 하소연한다.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정서적 상태인 것이다. 병든 심회를 풀어주는 바, 여기서 카타르시스의 과정이 드러나고 있음이다. 이 지점이 참여자들, 특히 텐동어미로부터 공감이라는 정서적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텐동어미 듣다가서 썩나서며 하는말이/가지마오 가지마오 제발적선 가지말게/
팔자한탄 없을까마는 가단말이 웬말이오/잘만나도 내팔자요 못만나도 내팔자지/
백년해로도 내팔자요 십칠세청상도 내팔자요/팔자가 좋을랑이면 십칠세에 청상
될까/신명도망 못할지라 이내말을 들어보소 (334)

텐동어미와 청춘과부의 만남은 그 자체로 이미 두 사람의 자기서사가 만나 는 상황이 된다. 청춘과부의 외로움과 그리움, 슬픔에 대한 공감에서 촉발된 텐동어미의 자기서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후 길게 이어지면서, 작품서사로서 청춘과부의 공감적 이해와 카타르시스 그리고 청춘과부가 살아갈 인생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며 통합된다.

아아울던 청춘과부 황연대각 깨달아서/텐동어미 말들으니 말씀마다 개개웁애/
이내수심 풀어내어 ... /이팔청춘 이내마음 봄춘자로 부쳐두고/화용월태 이내얼
굴 꽃화자로 부쳐두고/ 쌓인설움 웃음끝에 하나없네/구곡간장 깊은설움 ...
실실풀려/삼동설한 쌓인눈이 봄춘자만나 실실늑네/자네말은 봄춘자요 내생각은
꽃화자라/봄춘자만난 꽃화자요 꽃화자만난 봄춘자라/얼시고나 좋을시고 좋을시
고 봄춘자/화전놀음 봄춘자 봄춘자노래 들어보소 (359)

텐동어미의 일생담에 청춘과부는 “말씀마다 개개 옳다”는 깨달음으로 그동안의 수심을 해소하게 되며, 그 극대화로서 봄춘자를 노래하며 화전놀이를 즐기게 된다. 공감과 통찰을 통한 정서순화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는 텐동어미의 일생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그녀보다는 덜 불행하다는 깨달음⁴⁷⁾에 의한 갈등의 해소, 슬픔의 해소가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덴동어미의 작품서사와 청춘과부의 자기서사의 통합을 통한 자기서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덴동어미 일생담이라는 작품서사와 청춘과부의 자기서사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청춘과부의 자기서사가 공명(共鳴)하게 되는 바, 이 공명현상을 체험하는 동안 공감하고 감동하게 된 것이다. 병약한 자기 부정적 서사에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서사로 변화되는 것이다. 자기서사를 보충·강화함으로써 도달한 청춘과부의 통찰이 드러난다.

얼시고나 좋을시고 좋을시고 봄춘자/화전놀음 봄춘자 봄춘자노래 들어보소/가련하다 이팔청춘 내게당한 봄 춘자/노년에 갱환고원춘 덴동어미 봄춘자/... 우리부 모님 봄춘자/... 우리자손의 봄춘자/... 우리금주님 봄춘자/... 서왕모의 봄춘자/팔선대몽 구운춘 ... 단양덕네 봄춘자/ ... 청풍덕네 봄춘자/ ... 덕고개덕네 봄춘자/바람끝에 봄이온다 풍기덕네 봄춘자 (359-365)

58행에 이르는 봄춘자 노래는 수심이 풀려가는 것을 온갖 비유를 통해 노래함으로써 치유의 기쁨을 표현한다. 청춘과부와 덴동어미의 봄의 의미로부터 시작하여 부모·자손·임금을 챙긴 후에는 당대인에게 익숙한 온갖 인물들의 봄⁴⁸⁾을 나열하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는 흥겨움, 최고의 카타르시스와 신명이 담겨있다. 이는 다시 독자들에게 동일한 치유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봄춘자 노래는 꽃화자 노래와 함께 열거와 엮음을 통한 근심의 해소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급박한 호흡으로 빨라지는 장황하고 수다스러운 유창한 엮음들은 경쾌한 리듬감과 생동감을 통해 봄을 맞은 기쁨과 카타르시스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가사의 양식적 특성인 조목조목 ‘자상하게 말하기’와 ‘다정하게 노래하기’⁴⁹⁾의 치유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자상하게 말하기’

47) 우리는 문학에서 읽어내는 희망으로 절망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서 읽어내는 절망으로 우리의 절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지도 모른다. 변학수, 같은 책, 52쪽.

48) 서왕모, 구운몽의 9인, 왕소군, 도연명, 양귀비, 이태백 외에도 단양덕, 청풍덕, 풍기덕 등 수많은 여인들의 봄을 길게 엮어가며 표현함으로써 그 흥겨움이 최고조에 이른다.

49) 김학성, 「가사의 양식특성과 현대적 가능성」, 『우리 전통시가의 위상과 현대화』, 보고서, 2015, 266~303쪽 참조.

와 ‘다정하게 말하기’가 융합된 가사작품에서 경험하는 카타르시스는 온갖 삶의 고통에 대한 승화·통찰에 도달하게 하는 바, 가사가 자기 본성의 회복을 거쳐 자아실현에 이르게 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⁰⁾

3.3. 화자 및 화전놀이 참여 여성 그리고 독자

〈텐동어미화전가〉는 자연을 배경 삼아,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에 향촌의 여성들이 어울려 모여앉아 봄날의 소풍을 즐기는 모습이 생생하게, 밝고 환하게 담겨있다. 열린 공간에서 열린 마음으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치유되는 양상이 담겨있는 것이다. 화전놀이는 가장 자유롭고 편안하게 본인들의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영역인 것이다.

〈텐동어미화전가〉에서 화자는, 이차적 공감자로서 화전놀이(치유) 참여 여성들, 전승의 과정 및 현재적 의미에서는 독자들과 함께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화자는 온유하고 화평하며 긍정적인 목소리로 아름다운 봄 경치와 자연을 묘사하고, 등장인물들에 대해서는 사람됨을 소개하거나 외모나 차림을 예찬·논평하기도 하며, 노래와 춤에 대한 예찬 등 시작부터 귀가까지 일관된 목소리로 화전가를 이끌어간다. 화전놀이에 참여하는 여인들의 카타르시스와 통찰에 공감하는 목소리로, 그녀 또한 치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가세가세 화전을가세 꽃지기전에 화전가세/ ... 때마침 三月이라 ... /이런때를
잊지말고 화전놀음 하여보세/우리비록 여자라도 흥제있게 놀아보세 (327) 늙은부
녀 젊은부녀 늙은과부 젊은과부/앞서거니 뒷서거니 일자행차 장관이라/순홍이라
비봉산은 이름좋고 놀이좋아/골골마다 ... 꽃이로세/호산나부 병나부야 우리와같
이 화전하나 ... 꽃아꽃아 두견화꽃아 네가진실로 참꽃이다 (330)

흥겹고 화사하며, 밝고 경쾌하다. 화전놀이 가는 광경에 대한 설명적 영탄과 화전놀이가 장소인 비봉산에 대한 예찬이 비유적으로 표현된다. 순조롭고

50) 김은희, 앞의 논문, 84~86쪽.

화평하며 조화로운 세상모습이 담겨있다. 화자의 긍정적 정서와 인식이 드러난다.

(열여섯, 열일곱 신부)반만웃고 씩나서니 일행중에 제일일세/광한전선녀가 강림했나 월궁항아가 하강했나 ... (가난한 부인)그도또한 탈속하다 (329) 저기저새댁 이리오게 고예고예 꽃도고예/오리불실 고은빛은 자네얼굴 비슷하이/방실방실 옷는모양 자네모양 방불하이/앵고부장 속수염은 자네눈썹 똑같으네/ ... 뒷머리살 짝 꽃아놓니/앞으로보아도 화용이오 뒤으로보아도 꽃이로다. (331)

화전놀이 참여 여인들이다. 젊은 신부와 새댁의 아름다움을 비유를 통해 예찬하는 바, 상대방을 인정하는 마음이 드러나며 즐거움과 기쁨을 강화한다. 또한 가난한 부인의 차림을 “그도 또한 탈속하다”로 표현함으로써 젊으면 젊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각기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존재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화자의 공감과 통찰이 담겨있다. 비유를 통한 공감과 카타르시스가 긍정적인 자기서사로 드러나고 있음이다.

곱고곱다 참꽃이오 사랑하다 참꽃이오/ ... /치마앞에도 ... 바구니에도 따담이니/한줌따고 두줌따니 ... /그중의상송이 똑똑껴어 양쪽손에 갈라쥐고/ ... /손으로답삭 쥐어도보고 몸에도톡톡 털어보고/낮에다살짝 문대보고 입으로함박 물어보고 (330-331) 옛과떡과 함께먹으니 향기의감미가 더욱좋다/함포고복 실컷먹고 서로보고 하는말이/일년일차 화전놀음 여자놀음 제일일세 (331)

진달래꽃 따는 장면이다. 꽃송이를 손에 쥐어보기도 하고 몸에 톡톡 털어보기도 하고 얼굴에 살짝 문대보기도 하고 입으로 함박 물어보기도 하는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면서, 그 사랑스러움에 웃음 짓게 되며, 그 행복감과 즐거움에 공감하게 된다. 일상적 노동으로부터 벗어난 화자 및 참여 여성들의 공감과 카타르시스가 드러나 있다. 또한 화전가를 감상하는 당대의 여성들이나 지금의 독자들에게 봄놀이의 즐거움을 실감하게 하며, 일상적 고민이나 힘겨

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어여쁠사 소년자가 의복단장 옹게 하고/방끗 웃고 썩 나서며 ... /봄춘자노래
다했는가 꽃화자타령 내가함세/화수동류 흐른물에 만면수심 세수하고/꽃화자얼
굴 단장하고 반만웃고 돌아서니/ ... /오리볼실 앵도볼은 흥도화가 빛이곱다/ ...
/꽃화자같은 이사람이 꽃화자타령 하여보세 (365-366) 좋을시고 좋을시고 꽃화자
가 좋을시고/ ... 우리부모님 ... / ... 우리자손의 꽃화자요/ ... 석가여래 ... 우리
금주님 ... / ... 우리낭군 꽃화자요 ... 도연명의 꽃화자요/ ... /화전하는 꽃화자
는 참꽃화자 제일이라/다른꽃화자 그만두고 참꽃화자 화전하세. (366-368)

48행에 이르는 꽃화자노래 또한 봄춘자 노래처럼 만면수심이 풀려가는 것, 소년자의 맵시와 표정을 칭찬하고 묘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비유를 동원하여 노래함으로써 치유의 기쁨을 표현한다. 온갖 종류의 꽃화자를 엮어가면서 화전놀이 현장을 대화합의 장, 모두의 상처와 다양한 경험을 융합하는 통합의 장으로 끌어올린다. 꽃 또한 화전놀이의 본질이다.

꽃화자타령 잘도하니 노래속에 향기난다/나비떨떨 날아들어 꽃화자를 찾아오
고/ ... 난봉공작이 날아오고/벽궁새 피꼬리 날아와서 꽃화자노래 화답하고/꽃바
람은 실실불어 ... /청산유수 물소리는 꽃노래를 어우르고/붉은나오리 일어나며
꽃노래를 어리여고/오색운이 일어나며 머리에 둥둥 뜨니/천상선관이 내려와서
꽃노래를 듣는가베/여러부인이 칭찬하니 꽃노래도 잘도하네/ (369)

나비와 새, 바람과 물소리, 붉은 노을과 구름이 향기 나는 꽃화자 노래와 어우러져 천상 선관까지 내려와 꽃노래를 듣는 것 같다는 비유를 통해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진다. 슬픔도 고통도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절정에 도달하는 것이다. 봄과 꽃과 노래와 자연이 어우러진 대통합의 시간과 공간이 화자 및 참여 여인들의 행복감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며, 독자들에게도 공감과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만사우환 노래하니 우리마음 더욱**좋은**/화전놀음 이좌석에 꽃노래가 좋을시고/
꽃노래 도하하니 우리다시 할길없네/**긋은**맘이 **없어**지고 **착한**맘이 돌아오고/**걱정**근
심 없어지고 **흥체있게 놀았**으니/**신선**놀음 뉘가봤나 **신선**놀음 한듯하네/**신선**놀음 다
를손가 **신선**놀음 이와같지 (369)

신선놀음 같은 축제, 화전놀이 이후 변화된 통찰과 정화의 내용이 담겨있다. “긋은맘이 없어지고 착한맘이 돌아오고/걱정근심 없어지”는 통찰 끝에, ‘신선놀음’이라는 비유를 통해 정서적 행복감, 긍정적 인식의 극치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향기롭고 조화로운 세계의 대통합이 삶의 행복감으로 다가온다. 조화와 통합의 심적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 화자, 참여자 모두의 치유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해도해도 자를시고 ... /각귀기가 하리로다 ... /꽃없이는 재미없어 명년삼월
놀아보세 (370)

화전놀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가벼워지고 시원해진 마음과 함께였던 공감과 통찰, 카타르시스를 품은 채, 내년을 기약한다. 화전놀이 경험이 화자 및 화전놀이 참가 여성들 그리고 독자들 모두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깨달음 그리고 용기를 준다.

〈덴동어미화전가〉의 화자가 이 작품을 전승시키는 향촌가문 여성일 가능성이에서 볼 때, 화전놀이 참여여성들과 독자들이 화전가 향유 및 전승으로 받았을 위로와 격려를 공감할 수 있다. 〈덴동어미화전가〉를 감상하는 지금의 독자들 또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가해한 운명의 고통, 인간의 삶에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불행의 공감적 치유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독자로서 화전놀이와 화전가의 심리치료 메커니즘의 작동 과정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문학치료제로서의 현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덴동어미화전가>를 대상으로 문학치료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 카타르시스, 통찰의 세요소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경험하고 관찰해 보았다. <덴동어미화전가>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 놀이의 과정과 향유 및 소통의 양상을 정리·제시해 보았으며, 화자 및 주요 인물 그리고 참여여성들과 독자를 중심으로 그 치료과정 및 양상을 실증적으로 조목조목 짚어보았다. 즉 참여자들의 치유과정을 자기서사 서술에 초점을 맞추어, (1) 덴동어미 (2) 청춘과부 (3) 화자 및 화전놀이 참여여성 그리고 독자의 세 층위로 살펴 보았다. 조선후기 여성들이 화전가 창작과 향유, 전승을 통해 받았을 위로와 격려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봄으로써 그 현재성을 확인해 본 것이다.

<덴동어미화전가>에서 우리는 덴동어미가 자기의 과거를 불러와 화전놀이 참여 여성들 앞에 공개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운명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청춘과부 또한 화전놀이 과정에서 덴동어미의 삶을 경험·이해하고, 고독과 슬픔에서 벗어나 자기를 발견하며, 덴동어미의 일생담, 즉 작품서사와 자기서사의 통합을 통해 치유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학적 표현(말하기, 글쓰기)이 슬픔이나 억울함, 분노 등의 정서를 지우는 효과, 그런 정서로부터 벗어나는 효과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덴동어미 일생담은 청춘과부 외에도 화자, 화전놀이 참여여성들, 독자들 모두에게 치유의 기회를 증대한다.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과거에 직면하고 결핍을 이야기함으로써 확장된 공감과 카타르시스, 깊어진 통찰에 의해 참여자 모두를 치유하는 것이다. 자기서러움의 토로와 놀이는 덴동어미와 청춘과부에게 정직함의 훈련이었으며 자기 암시였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확장시켜 치유에 이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자발성과 창의성이 나를 치유하고 나아가 남을 치유하는 힘이 있음도 확인된다. 삶의 문제는 결국 자신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화전놀이 참여여성들과 독자들이 인식하게 한다. 특히 <덴

동어미화전기〉를 감상하는 지금의 독자들에게는 불가해한 운명의 고통, 보편적인 불행의 치유경험을 공유하게 한다. 심리치료 메커니즘의 작동과정을 보면서 문학치료제로서 현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덴동어미화전기〉의 치유과정은 문학치료의 전형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덴동어미화전기〉는 치유적 문학 텍스트⁵¹⁾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감각적 이미지가 아름답고 감화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심미성), 정서의 긍정적 변화, 문제적 정서가 해결되는 양상의 변화를 생성(방향성/변화성)하고 있다. 또한 독자의 보편적·긍정적인 정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적 소재 혹은 배경을 포함하고 있는 바, 밝고 건강한 가치관을 제공(건강성)하고 있으며, 독자에게 친밀하고 공감할 수 있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면(접근성/친밀성)이 있다. 시 치료에서는 독자가 주목하는 특정 시구나 시어를 매개로 구술이나 詩作을 통해 경험의 반추, 정서의 향유,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의 정서적 접근을 막는 난해성을 배제하고 독자 자아의 내면 활동을 작동시킬 최소한의 가독성을 지녀야 한다고 볼 때, 이 또한 갖추고 있는 것이다.

51) 최혜경, 「치유적 시텍스트의 판독을 위한 정서적 상황요건」, 『문학치료연구』 1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75~109쪽.

참고문헌

- 권영철, 『규방가사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259쪽.
〈텐동어미화전기〉,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99, 307~333쪽.
박혜숙 편역, 『텐동어미화전기』, 돌베개, 2011.
_____, 「주해 〈텐동어미화전기〉」, 『국문학연구』 24, 국문학회, 2011, 325~370쪽.
- 김용철, 「〈텐동어미화전기〉 연구 (1) -서사구조와 비극성을 중심으로-」,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김은희, 「가사문학의 창의적 가치」, 『한국시가문화연구』 3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63~94쪽.
김종철, 「운명의 얼굴과 신명 -〈된동어미 화전기〉-」,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5.
김학성, 「가사의 양식특성과 현대적 가능성」, 『우리 전통시가의 위상과 현대화』, 보고서, 2015.
박경주, 「화전가의 의사소통 방식에 나타난 문학치료적 의미」,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_____, 「규방가사 창작에 담긴 문학치료적 기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111~144쪽.
박혜숙, 「운명과 달관의 서사가사-텐동어미화전기-」,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3, 휴머니스트, 2006.
백순철, 「문화콘텐츠 원천으로서 〈화전기〉의 가능성」, 『한국고시가문화연구』 34,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4, 217~249쪽.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5.
_____,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6.
이병숙, 『문학치료적 측면에서 본 텐동어미의 역할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임주탁, 「텐동어미, 불행하지만 누구보다 삶을 사랑한 여인」, 서대석 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4, 휴머니스트, 2008.
장정수, 「화전놀이의 축제의 성격과 여성들의 유대의식」, 『우리어문연구』 39,

- 우리어문학회, 2011, 147~179쪽.
- 전미정, 「치료의 수사학(2) -시 치료 사례를 통해 살펴 본 비유의 세 가지 치료 메커니즘-」, 『문학치료연구』 2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93~119쪽.
- _____, 「대학생의 자아성찰을 위한 ‘변형시’ 쓰기의 치료적 효능」, 『문학치료연구』 2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35~159쪽.
-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47~278쪽.
- _____,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 『영화와 문학치료』 3, 서사와 문학치료연구소, 2010, 315~335쪽.
- _____, 「문학치료학의 서사 및 서사의 주체와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2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233~252쪽.
- _____, 「자기서사의 변화과정과 공감 및 감동의 원리로서의 서사의 공명」, 『문학치료연구』 25,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 368~369쪽.
- 최상은, 「규방가사의 유형과 여성적 삶의 형상」, 『새국어교육』 91,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351~380쪽.
- 최소영, 『문학치료학, 이론과 실제』, 고요아침, 2016.
- 최혜경, 「치유적 시 텍스트의 판독을 위한 정서적 상황 요건」, 『문학치료연구』 1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1, 75~109쪽.
- 니콜라스 마자 저, 김현희 외 공역, 『시치료』, 학지사, 2005.

| Abstract |

<Dendongeomihwajeon-ga> from the Point of View of Literary Therapeutics

— focused on the process of healing —

Kim, Eun-hee

This paper has examined and observed the specific process of the three elements like empathy, catharsis and insight, which are the mechanisms of literary therapeutics. I went into the text of <Dendongeomihwajeon-ga> and organized the process of play and aspects of enjoyment and communication. I also empirically examined the process and aspect of the therapeutics focused on a narrator, main characters, participating women and readers one by one. In other words, I looked over the process of the healing by three layers: (1) Dendongeomi[Dendong mother], (2) young widow, (3) narrator and participating women of Hwajeon play. I have confirmed the nowness by presenting the comfort and encouragement that wom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would have received through the creation, enjoyment and transmission of Hwajeonga.

Dendongeomi talked about her past in front of the participating women of Hwajeon play. I could find out that Dendongeomi discovered herself and escaped from the fateful pain through the story. I also find out that the young widow could have healed solitude and sorrow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epic of herself and the epic of the work. The story of the Dendongeomi's life provided opportunities to heal for the narrator, readers and participating women besides the young widow. In particular, despite her shame, she honestly faced to her past and talked about her deficiency and therefore healed all the participants by her extended sympathy,

catharsis and deep insights. The exposing her sorrow and play were a training of honesty and a Self-suggestion to Dendongeomi and the young widow.

The spontaneity and creativity can heal oneself and also give the strength to heal others. Their healing process makes participating women and readers aware of the fact that the problem of life is inevitably solved by oneself. It

allows us to share the healing experience from the fatal sufferings and the universal unhappiness. As a reader of modern life, I could confirm the present value of Hwajeonga and Hwajeon play as a literary therapeutics. As mentioned above, it is confirmed that the <Dendongemihwajeonga> has enough value of a literary text for healing.

Key words : Hwajeonga, Literary Therapeutics, Communication, Empathy, Catharsis, Insight, Epic of a Literary Work, Epic of Self

